

축구명가 PSG 입국 “이강인 왔다”

김해공항 국내 축구팬들 몰려 부산서 마지막 프리시즌 매치 오늘 오후 5시 전북과 대결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3차전'을 앞둔 '프랑스 명가' 파리 생제르맹(PSG)이 300여명 팬의 환호를 받으며 부산에 도착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 선수단은 2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프리시즌 투어에 나선 PSG는 지난달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트라브르 AC와 경기를 시작으로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에서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 세레소 오사카(일본), 인터밀란(이탈리아) 등과 차례로 맞붙었다.

PSG는 3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K리그1 강호 전북 현대와 대결을 마지막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끝내고 한국시간 13일 오전 4시 FC 로리앙과 2023-2024 프랑스 리그1 1라운드를 치른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프리시즌 매치를 부산에서 치르는 PSG 선수들을 보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에는 도착 시간을 한참 앞두고 이강인과 네이마르 등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든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응원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준비한 팬들도 많았다. PSG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입국장에는 300여명이 넘는 팬들이 저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높이 들고 선수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엔리케 감독을 선두로 선수들이 나오자 입국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지난 6월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부산을 찾았던 이강인은 PSG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았고, 팬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며 사인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PSG 트레이닝복과 모자를 쓴 이강인은 팬들이 내민 유니폼에 사인을 해준 뒤 곧바로 버스에 올랐다. 엔리케 감독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팬들이 준비한 유니폼에 직접 서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PSG 선수들은 이날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픈 트레이닝도 진행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가운데)이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PSG는 3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황선우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 훈련으로 극복”

수영 국가대표 미디어데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목표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2023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는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성취감과 동시에 숙제를 남긴 무대였다.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2라는 새 한국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롱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 2회 연속 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하지만 자유형 200m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진 자유형 100m에서는 준결승 48초08, 9위로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목표로 했던 자신의 한국 기록(47초56) 경신에 실패했다. 메달을 목표로 했던 계영 800m에서는 몸살감기 증세로 완전한 기량을 펼치지 못해 시상대에 서지 못한 채 김우민·양재훈(이상 강원도청), 이호준(대구시청)과 한국 신기록을 두 차례 수립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황선우는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수영 국가대표 미디어데이에서 체력 보완이 숙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황선우는 “메이저 대회에서 자유형 200m를 뛰고 나면 그 다음 날 회복이 굉장히 힘들다. 주 종목 자유형 200m에 집중하다 보니 다음 날이 힘들고 부진한 거 같다”면서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을 훈련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했다.



황선우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단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메달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선우는 자유형 100m와 200m, 여기에 계영 800m까지 3관왕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항저우에서는 9월 24일 자유형 100m 일정을 소화하고 자유형 200m는 27일, 계영 800m는 25일에 열린다. 황선우는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를 먼저 뛰는 건 나쁘지 않다. 짧은 경기라 자유형 200m보다 피로가 덜 쌓일 거다. (자유형 100m와 200m 사이) 단전전을 4개 정도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초인적인 힘 발휘해서 헤쳐 나가야 할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 수영의 ‘라이징 스타’ 판잔리(18)와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황선우는 자유형 200m, 판잔리는 자유형 100m가 주 종목이다. 이번 대회로 황선우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자유형 200m에서 1분43초대 진입이다. 전신 수영복을 금지한 2010년 이후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3초대에 진입한 선수는 지난해 로마 유럽선수권대회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1분42초97)와 2012 런던 올림픽 아널 프랑크(프랑스·1분43초14) 두 명뿐이다. 황선우가 이 영역에 진입하면, 파리 올림픽에서 시상대 꼭대기까지 노려볼 만하다. 황선우는 “후쿠오카 자유형 200m에서 1등부터 3등까지 0.1초에 걸렸다. 사실상 먼저 터치패드 찍는 선수가 높은 단상에 올라가니 마지막까지 정신력 놓치지 않고 먼저 터치했다. 1분43초대에 들어가는 것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많은 메이저대회에 우승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울산, 홍명보 감독과 3년 연장 계약

홍명보 감독이 2026년까지 울산현대를 이끈다. 울산은 2일 “홍명보(사진) 감독과 2026시즌까지 함께 하는 3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1시즌 팀 체질 개선을 표방하며 울산의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17년 만의 리그 우승을 가져왔고, 올 시즌에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구단 역사상 첫 리그 2연패와 두 시즌 연속 리그 조기 우승을 노리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부임 첫 시즌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 전술과 팀 매니징을 선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9번의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다. 총 24경기를 소화한 올 시즌에도 울산은 4차례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시간이 팀을 파악하고만 들어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울산이 K리그를 대표하는 리딩클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연장 계약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은 올 시즌 18승 2무 4패(승점 56)를 기록하면서 2위 포항스틸러스(12승 8무 4패·승점 44)를 12점 차로 따돌리고 2연패를 향한 한창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록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시간이 팀을 파악하고만 들어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울산이 K리그를 대표하는 리딩클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연장 계약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은 올 시즌 18승 2무 4패(승점 56)를 기록하면서 2위 포항스틸러스(12승 8무 4패·승점 44)를 12점 차로 따돌리고 2연패를 향한 한창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문화중 농구 전국종별선수권 3위

광주 문화중(사진)이 제78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문화중은 최근 영광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국 4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예선 첫 경기에서 경남 팔용중을 87-58로 제압한 문화중은 이어 경남 임호중을 73-67로 꺾었다. 문화중은 인연 안남중과의 경기에서 89-86, 3연승을 거둔 뒤 본선리그에서 시드 배정을 받아 8강에 직행하는 행운도 얻었다. 8강에서 '전통의 강호' 천안 성성중을 만난 문화중은 69-57 승리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 상대는 지난 4월 협회장기농구대회 준우승 당시 준결승에서 만났던 서울 휘문중. 하지만 지난 31일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190cm 장신 센터 김건우의 부상 공백이 아쉬웠다. 문화중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서 휘문중에 67-73 패배를 기록했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문화중은 대한농구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농구 대잔치'에서 4강을 이뤘다.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는 전국 초·중·고·대·실업, 일반부까지 모두 출전하는 가장 큰 농구 대회다. 김건우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주장 정유민(3년)을 비롯해 박주현·김경륜·김지성(3년) 추우담(2년)가 교체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5개임을 모두 소화하는 투혼을 발휘하며 전국 대회 3위 성과를 냈다. 문화중 김서명 교장은 “센터 김건우 선수의 부재에도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이 강한 정신력을 이끌어 내어 주었고 그 어느 때 보다 탄탄한 팀워크와 박찬영 코치의 체계적인 지도와 선수들의 성실한 훈련 참여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 최선을 다한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프로농구 10월 21일 개막 공식 개막전 인삼공사-SK

프로농구 2023-2024시즌이 10월 21일 개막한다. KBL은 2023-2024시즌 정규리그를 10월 2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는 경기 일정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2022-2023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대결한 안양 KGC인삼공사와 서울 SK 경기다. 지난 시즌 인삼공사를 우승으로 이끈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SK로 이적한 오세근은 첫 경기부터 '천정' 인삼공사를 상대하게 됐다. 해마다 12월 31일 밤에 열리는 '농구영신' 매치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대구 경기로 열리며, 올스타전은 2024년 1월 14일에 개최된다. 정규리그는 월요일 1경기, 화·목·금요일 2경기씩, 주말은 3경기씩 진행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비공식작전
2관	비공식작전
3관	밀수
4관	엘리멘탈, 인시디어스: 발간 문
5관	더 문
6관	더 문
9관	밀수, 몬스터 매릴리 2,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7관 싸여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여름날 우리

8관 싸여들: 밀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시디어스: 발간 문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